

민실위 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 이호찬
편집인 : 김재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전화 : 789-3883~6 팩스 :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 www.mbcunion.or.kr
2023년 6월 22일 (목)

‘임영서 체제’ 출범 100일...뉴스룸을 말한다

- 민실위, ‘뉴스 평가’ 좌담회 진행... ‘수평적 소통’ 강화, 첫 과제로 꼽아

취임 전 정책발표회에서 임영서 국장은 언론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했다. 반칙과 불법 등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감시해야 하고, 새로운 흐름과 방향에 대한 열린 자세와 다양성을 견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 뉴스에 현장과 맥락을 붙여넣고, 뉴스룸 조직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서 체제’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뉴스룸은 어떠한가. 임 국장이 공언했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 민실위는 최근 좌담회를 잇달아 열고, 뉴스룸에 대한 민실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임영서 체제’ 100일 평가를 정리하려 한다.

‘수평적 소통’ 아닌 ‘하향식 소통’의 강화

민실위원들은 현 뉴스룸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의 방식을 꼽았다. 국장이 밝혔던 ‘수평적 소통’보다는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소통’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후 4~5시 넘어 편집부의 일방적 지시를 통해 제작되는 리포트가 늘었고, 뉴스 편성이 편집부의 권한임을 인정한다 해도 뉴스 시작 이후까지 큐시트가 뒤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열린 편집회의를 지향하겠다”, “편집회의는 발제와 발표에 그치는 공간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이 주가 돼야 한다”고 했던 정책 설명회 당시 국장의 발언과 달리 편집회의 자체가 요식 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실위원A]

“수평적 소통이 강화된 것 같지 않다.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래로만 뚫린 하향 소통이 되어버린 듯하다. 편집부의 입김으로 뉴스가 확 바뀌는 느낌을 받고 있다.”

[민실위원B]

“갑자기 오후 4시쯤 총이 날아오고, 그렇게 제작된 리포트는 뉴스 시작 뒤 큐시트가 뒤바뀌면서 주로 두세 번째 블록에 잘 꽂힌다. 소위 ‘그림 뉴스’이다. 큐시트는 하루 종일 뉴스룸이 고민해 내놓은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데 뉴스 시작하고 쉽게 바뀌면 하루 종일 뉴스룸이 고민한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은가.”

민실위원들은 편집부의 제작 요청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이 왜 뉴스인가’, ‘제작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포트를 해야 할 명분에 대한 설명이나 토론 없이 사실상의 ‘지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편집부 요구로 꼭지를 늘릴 경우에도 충분한 소통이 없다 보니, 정작 내용 정리는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실위원C]

“위에서 내려오는 게 정리가 돼서 오면 우리가 살도 붙이고 하겠는데, 뭘 하라는 건지 정리가 돼서 오지 않는다. 발주는 하는데 ‘뭐 하나 해줘’ 이런 식이다.”

[민실위원D]

“편집부가 본인들이 쓴 총이면 그걸 책임지고 가르마를 타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팀장들과 편집부가 잘 소통하는지 의문이다.”

뉴스룸에서 취재 부서와 편집 부서 간 갈등은 늘 존재해왔던 문제이다. 뉴스가 방송되기 전까지 최선의 큐시트를 만들려는 편집부의 노력 또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민실위원들의 판단은 그 정도에 있다. 지금과 같은 ‘하향식 소통’이 계속된다면, 구성원들의 취재 의욕 저하는 물론, 뉴스룸의 경쟁력에도 결국엔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민실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소통’을 가로막는 ‘시청률’

민실위원들은 이른바 ‘그림 뉴스’, ‘CCTV 뉴스’에 대한 집착이 소통의 또 다른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사와의 시청률 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단순 사건사고나 자극적 뉴스들이 큐시트에 과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 해당 리포트들이 큐시트 앞자리로 점차 올라가면서, 의미 있는 스트레이트나 기획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큐시트에서 빠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9일 뉴스데스크를 보자. 이른바 ‘그림뉴스’들로, 경찰 제공 영상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이용한 사건사고 리포트 7개가 보도됐다. 특히 18번째 리포트부터 23번째 리포트까지 6개가 ‘사건사고’나 ‘그림 뉴스’ 리포트로 편성됐다.

[5월 9일 뉴스데스크]

순서	제 목	특 이 사 항
8	또 택시 취객 난동..순식간에 30차례 주먹질	블랙박스 영상
18	모텔 통째로 빌려 땅굴 판 '기름 절도단'	경찰 제공 영상
19	도쿄 한복판서 '롤렉스' 턴 복면 3인조	외신 영상
20	계곡에서 캠핑하다..폭우에 30대 부부 참변	.
21	'벽간 소음'에 이웃 살해한 40대 체포	건물 CCTV
22	우편함에 마약이..현역 군인도 덜미	건물 CCTV
23	중국 어선 불법 조업..“우리가 막는다”	해경 제공 영상

누가 봐도 뉴스의 가치보다 시청률을 과도하게 의식한 편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편집이 계속될 경우, 이른바 ‘그림 없고 재미없는, 하지만 의미 있는’ 뉴스들은 뉴스데스크에서 점차 배제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1일, 뉴스데스크는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요금 28만 원을 안 내고 도주했다 검거된 이들의 뉴스를 택시 블랙박스를 이용해 보도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 소식은 데스크 단신으로 잡혀 있다가 다른 기획 기사와 함께 큐시트 밖으로 밀리며 방송되지 못했다. 5월 12일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 경비행기를 위장 추락시켰다는 ‘생생한 그림’의 해외토퍹이 방영됐고, 10·29 참사 추모 공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담은 리포트는 큐시트에서 빠졌다.

민실위원들은 특히 제작 시간이 빠듯한 오후 4~5시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림 뉴스’를 리포트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고 했다. 화제의 뉴스를 데스크 리포트로 제작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 같은 경우 사건사고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자는 사회 뉴스 본연의 취지보다는 늘 단순한 그림 전달에 그치기 쉽다는 점을 민실위원들은 우려했다. 민실위원들은 ‘임영서 체제’ 뉴스룸에서 ‘그림 뉴스’ 제작이 기존에 비해 더 늘어났다고 인식했다.

[민실위원A]

“3~4번째 블록의, 소위 ‘시청률 존’ 이런 것에 편집부가 빠져있는 듯하다. 목적성은 분명한데 그것이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한 목적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민실위원C]

“그림 뉴스에 대한 욕심, 시청률에 대한 조급함으로 뉴스를 채우는 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CCTV 뉴스를 내렸다면, 고민을 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짚어주든가 해야 하지 않나. 단순 CCTV 뉴스 제작을 그것도 오후 4시, 5시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힘이 많이 빠진다.”

[민실위원B]

“중요하고 시의성 있어 좀 높은 데 올라갈 법한 기사들이 처음에는 올라가 있다가 저녁 자리하고 나서 큐시트 보면 맨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부서장도 적극 소통해야.. 발제 부족도 문제”

민실위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편집부 탓으로만 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청률에 집착한 편집이나 편집부의 과도한 제작 지시에 대해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수용만 하는 취재 부서장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기사 발제 자체가 빈약한 경우를 자주 접한다며, 편집부를 탓하기 전에 팀장을 포함해 팀원들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실위원E]

“편집부만 지적하기가 애매한 게 아침에 아이템 올라온 거 보면 진짜 한 10개, 11개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발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 뉴스를 어떻게 낼 거냐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사실 좀 어색해지는 건 있다.”

[민실위원A]

“악역을 하기를 너무 싫어한다. 팀장이 편집부와 싸우든지, 아니면 팀원에게 ‘네 판단이 맞으면 취재해서 심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가져와’라고 말하든지 해야 한다. 그냥 지레 포기해 발제를 킬거나 편집부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방식이다. 기자들은 자신이 로봇인지, 발주받아 그대로 만드는 공장인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스트레이트 누락.. 편향성 시비

민실위는 뉴스데스크에서 주요 스트레이트가 누락된 사례를 모아봤다. 민실위원들은 리포트는 물론 일부 단신 누락까지, 최근 뉴스룸에서 스트레이트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주요 스트레이트 메인뉴스 누락 사례]

	제 목	MBC	KBS	SBS
4/9	'美기관 한국 대통령실 감청' 보도	ND 단신	리포트	톱 리포트
4/18	태영호, "김구, 김일성 전략에 이용당해"	온라인 단신	리포트	리포트
5/8	10·29 참사 유가족들,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온라인 단신	리포트	리포트
5/2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누락	리포트 2쪽지	리포트
6/7	"북핵 고도화 가장 큰 위협"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	온라인 단신	리포트	리포트

이 같은 스트레이트 누락은 정치적 사안과 연결될 경우 편향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민형배 의원 복당’과 ‘우상호·장경태 의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송치’ 사안이 그렇다. 타사는 메인뉴스에서 다른 기사들이었지만, 우리는 큐시트에 잡혀 있었다가 다른 기사에 밀려 뉴스투데이로 나갔거나, 아예 리포트로 제작되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 복당 관련 보도 / 지난 4월 26일]

MBC	KBS	SBS
		
뉴스데스크 미방 뒤 뉴스투데이 리포트	뉴스9 리포트	8시 뉴스 리포트

[우상호·장경태 의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송치 보도 / 지난 4월 24일]

MBC	KBS	SBS
미 방		
온라인 단신	뉴스9 리포트	8시 뉴스 단신

특히 4월 26일 뉴스데스크에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스트레이트가 누락된 것은 뼈아팠다. 대다수 언론이 '위장 탈당'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내 비판과 함께 '뻔뻔한 귀가'라는 여당의 목소리를 리포트에 담았는데, MBC만 메인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민실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편집부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우상호·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사진 조명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4월 24일 기사도 뉴스데스크에 단신조차 내지 않은 것은 문제란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크게 불거진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의혹’ 보도 역시 타사에 비해 대처가 늦었다는 민실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5월 5일, 관련 의혹이 터졌을 당시 JTBC와 SBS는 발 빠르게 김남국 의원이 ‘비트코렌트’와 ‘위믹스’, ‘클레이페이’ 등 이른바 ‘잡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비상식적으로 사들였고, 국회 상임위 진행 중에도 초단타 매매를 했다는 단독 보도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우리 뉴스는 국면 내내 정치권 반응 리포트가 주가 되면서 사안의 본질을 파헤치는 심층 보도에 소홀했다고 민실위원들은 지적했다. SBS와 JTBC가 관련 뉴스를 5번에 걸쳐 톱 블록에 보도한 데 비해 뉴스데스크의 ‘김남국 코인 의혹’ 톱 보도는 탈당 선언 당시 한 번뿐이었다. 뉴스 배치에 있어서도 타사에 비해 소극적이란 인상을 남겼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5월 3일 뉴스데스크는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사실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16번, 17번째 순서에 보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뉴스 시작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개 뉴스 모두 큐시트에서 빠졌다. 이 상황을 파악한 정치팀이 편집부에 다시 넣어줄 것을 요청했고, 편집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당 관련 리포트만 뉴스 마지막 꼭지로 겨우 방송됐다. 당일 뉴스데스크 톱 블록이 ‘용산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을 담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관련 내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뉴스 가치는 물론 뉴스데스크의 균형 차원에서도 당연히 방송됐어야 할 리포트였다.

민실위원들은 공정방송이란 가치를 지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공공연히 MBC 장악 의도를 내비치는 현실에서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뉴스룸이 더 꼼꼼해지고 철저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실위원C]

“국회의원이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을 집요하게 파으면 오히려 더 좋은 뉴스가 났을 것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본분과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따끔해야 했다. 우리가 정치 편향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고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민실위원F]

“양적으로 좀 안 다루거나, 큐시트 뒤로 빼는 건 문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있었고, 김남국 코인 의혹도 있다. 나는 궁금하다, 뭔지 알고 싶다. 그런데 리포트 내용이 좀 적다. 타사는 달려드는 게 보이는데.. 최소한 양적으로는 맞춰야 하지 않나, 톱은 우리가 취재한 대로 쓰더라도..”

[민실위원B]

“타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보도가 뉴스 시작 뒤 큐시트 말미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큐시트가 뉴스 시작하고 바뀌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사는 빌미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계속되는 오보와 방송사고

민실위는 지난 3월 30일 발생한 ‘김성태 오보’ 사태 이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민실위 메모를 냈다. 당시 뉴스룸은 재발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강화’를 약속했다. 최근 뉴스룸은 선임기자 파트에 팩트체크 업무를 맡겼다. 선임기자 파트는 매일 당번을 정해 뉴스데스크의 팩트체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는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외부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담당 기자부터 데스크, 팀장, 편집부, 선임기자들까지 모두가 더 경각심을 갖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오보와 잦은 방송 사고는 뉴스룸 구성원 모두가 현장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뉴스 신뢰도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특정 오보와 자막 실수 등은 ‘편향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임영서 뉴스룸 국장은 지난 14일 편집회의에서 “차후 또 사고 발생 시 말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오보’ 이후 MBC가 맞은 호된 못매를 생각한다면, 한 발 늦은 지적이었다.

[최근 방송사고 사례]

날짜	제 목	오류 사항
4/6	[ND] 지도부 구설수·지역구 패배..김기현 "총선 때 불이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역구 잘못 표기
5/31	[ND] '비속어 파문' 뒤, 국가기관 총동원해 지속적 압박	방통위를 방문진으로 잘못 표기
5/31	[ND] "김정은, 동창리서 직접 참관..무리한 항로변경·발사준비에 실패"	김정은을 김정일로 잘못 표기
6/8	뉴스외전 단신 낭독 오류	3개 단신을 섞어서 낭독
6/12	국회, 오늘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원내대변인으로 잘못 표기
6/12	삼성전자 공장설계도 빼내 중국에 공장 복제 시도한 전 임원 등 7명 재판행	7명 기소를 7명 구속으로 잘못 표기

“국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

민실위원들은 편집회의에서 임영서 국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뉴스에 대한 평가와 당일 뉴스데스크 기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좀 더 명확히 밝힌 뒤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장이 밝힌 대로 우리 뉴스에 현장과 맥락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구체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실위원들은 지난 100일, 태영호 의원 관련 단독 보도나, 조선일보의 악의적 분신 보도 검증 등을 통해 뉴스데스크가 MBC 보도의 힘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또한 ‘스쿨존 기획’을 톱 블록에 연속 편성하며,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점이나 우리만의 톱 블록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팀의 유기적 협조 노력 또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책문화팀에서 내놓은 ‘위기의 아이들, 빈곤에 갇히다’ 연속 보도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양질의 기획보도였으며, 춘천MBC에서 제작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불 사태 중 골프 논란’과 MBC충북의 ‘의원님은 갈비찜, 학생은 카레밥’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보여줬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팩트&이슈’팀이 새로 만든 ‘현장검증’ 코너도 이슈화된 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타사와 차별화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영서 뉴스룸 국장 “수평적 소통 강화하겠다”

민실위는 지난주 금요일 임영서 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 100일 뉴스룸에 대한 민실위원들의 평가를 전하고, 국장의 생각을 들었다.

임 국장은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가 미흡했다는 민실위의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임 국장은 “소통방식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부터 찾아 실행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특히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 보도국 내 부서 간 협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소통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일의 특정 사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현재 우리 뉴스는 ‘톱 블록’ 보도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어느 한 팀의 능력만 가지고 톱 블록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수평적 소통을 강화해 부서간 공조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 국장은 시청률을 의식한 ‘그림 뉴스’ 리포트들이 4번째 블록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판받을 정도로 그림 뉴스를 많이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소위 사건사고 뉴스가 중요하지 않은 뉴스인가라는 고민을 해박야 한다”며, “우회전 교통사고나, 어린이집 학대, 음주운전 등도 애초 사건사고로 시작된 사안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를 두고 하는 논의 구조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편한 비판의 지점으로 작용했고, 시청률을 추구한다는 단선적 비판의 근거도 됐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다만, “과하게 들어가고 중요한 문제를 밀어내는 사건사고 뉴스는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가끔 사건사고 리포트를 보면서 고민의 지점이 없어 아쉽다는 느낌을 갖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점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뉴스 편성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임 국장은 “주요 스트레이트 보도가 방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경우 사안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이트 누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보도국장은 어느 사안을 더 심층적으로 보도할 것인지, 또 메인뉴스에서 내릴 것인지 용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뉴스데스크의 톱 블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톱 블록은 시청자들에게 우리 뉴스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블록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블록을 늘린 만큼 고민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방송은 MBC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실위는 MBC 구성원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인정받은 ‘공정방송’이란 ‘근로조건’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MBC를 장악하기 위한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에 대한 저항과 별개로 우리 내부를 겹쳐히 돌아보는 노력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우리의 지난 약속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권력자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상식의 시각에서 우리 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뉴스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민실위 활동을 통해 우리 뉴스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조직 내 더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